

# 전북도, 한우농가 경영 안정에 '총력'

### 한우 산지가격 하락 · 사료값 증가 등 농가 위기 대응 목적... 사료비 부담 경감 · 한우개량 소득향상 · 소비 활성화 등 대책 추진

한우 산지 가격 하락 및 사료값 증가 등 한우농가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한우 사육육수 감소 및 한우고기 소비 확대 등 경영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먼저 도는 한우 사육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값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2022년도 사료구매자금 융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이자금(이율 1%)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축산농가 사료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사료 구매 정책자금 융자(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를 지원한다.

또한,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빠른 조사료 수확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 조사

료 재배농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농가 사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저비용 고소득 전북 한우육성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하고자 한우개량 사업과 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한우 암소 92천 두의 유전형질 개량기반 구축과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소 6만 두의 친자확인 검사를 통한 체계적으로 이력을 관리한다. DNA 검사로 통한 전북의 좋은 암소 25천 두 선발 및 농가 컨설팅으로 우수한 후대 송아지 생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저능력 암소 조기 도태로 사육 미릿수 감소, 저비용 고소득 고급육 생산, 사육기간 단축으로 축산분야 탄소 발생량 감소 효과를 거

둘 것으로 예상된다.

농장의 시설개선 및 ICT 장비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축산환경 조성도 지속 추진한다.

한우 도매가격은 하락 중인데 소비자가격을 제자리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효율적인 유통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 축산물 작업장의 단계별 HACCP 의무적용에 따라 인증시설·장비지원을 통한 인증 판매장 확대와 HACCP 인증취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가·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중심으로 저가대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도내 축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로 신규 수요처 발굴과 한우의 소비 진작을 위한 홍보·관측 행사 등을 지속 추진한다.

이에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중심으로 '소(牛)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열어 대대적으로 한우 할인에 나선다. 소비자가 한우 가격 인하를 지속 체감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외에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연중 전국 평균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시·군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한우협회, 축협 등 관련 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며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한우 관측 행사 등이 열릴 예정이니 도민들께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한우 소비 확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 도 보건환경연, 손씻기 · 음식 익혀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 이하 연구원)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도내 집단 식중독 유증상자는 28명이다. 작년 한 해 유증상자 2명이었던 점에 비하면 두 달만에 14배가 급증한 상황이다.

특히 원광대병원, 연세가정의학과, 연광연합소아과 등 수인성·식중독에 감염된 환자 2명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총 72건의 검체 중 17건(23.6%)이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감염병 병원체를 검출한 결과 역시 노로바이러스 농도가 최근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김재훈 기자

겨울철 대표적 바이러스성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 외 복통, 오한, 발열도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음식 재료는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김호주 원장은 "노로바이러스는 백신이 없고 전염성이 강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께서는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김관영 도지사, 한국스카우트연맹 평생회원 됐다

### 새만금잼버리 성공 개최 · 청소년들 꿈 실현 지지 위해 가입... 실효성 높은 청소년 사업 연맹과 파트너십 발휘 기대

172개 회원국 4만 5천여 명이 참가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와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한국스카우트 평생회원이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지사는 22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정기총회 행사에 참석해 한국스카우트 평생회원 메달 및 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를 비롯한 부총재, 사무총장 및 소속 연맹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평생회원 메달 및 증서 전달식과 세계 애우일행사 등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이번 도지사의 평생회원 가입은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님을 비롯한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에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전북은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위해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및 아영장 등 행사시설을 차질없이 준비 중이며 다채로운 과외활동과 일인일인 방문자를 위한 일일프로그램도 내실있



22일 서울 영등포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스카우트홀에서 열린 2023 정기 전국총회에서 김관영 도지사(오른쪽)가 강태선 총재에게 한국스카우트 평생회원 메달 및 증서를 받고 있다.

게 구성하고 있다"며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강태선 연맹 총재는 "기대되고 기다리던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한국스카우트연맹도 적극 참여해 청소년들의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잼버리 조직위를 비롯한 행안부·문체부·여가부 등 중앙부처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국별 잼버리 협력과제(5개 분야) 2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

모 국제 행사인 만큼 세계 잼버리 개최 효과가 도내 전역으로 파급·확산 되도록 14개 시군의 문화·체육·관광 자원을 활용한 잼버리 콘텐츠를 조직 위와 공동으로 기획·발굴하고 있으며 대회 붐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와 범도민지원위원회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수요피칭마루' 개최

### 초기단계 창업기업 투자역량 강화 위한 투자매칭 프로그램

전북도는 초기단계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인착을 위해 초기단계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투자매칭 프로그램인 '수요피칭마루'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요피칭마루는 2019년부터 꾸준히 개최되어온 도내 대표적인 투자매칭 프로그램이다.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매월 2회(월·수, 목·금) 수요일 오후 2시(월·수) 10시(목·금)에 진행된다.

이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수요피칭마루에 참여한 초기창업기업 4개사는 △나노기술 기반 수처리용 제품을 개발하는 나노하

인(대표 이근호) △탄소소재 융복합 제품 에이치지솔루션(대표 조용기) △제마탄 사료제조 솔루션 엔텍바이오(대표 김의철) △하인 큐레이 션 플랫폼 패치캐처(대표 도건희) 등이다.

투자자 8개사는 △포스코기술투자(VC) △L&S(VC) △크립톤(AC), △한국바이오투자파트너스(AC) △로간(AC)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유니(AC) △전북엔젤투자클럽으로 초기창업기업(1개사)-투자자(2개사) 간 30분씩 교차 상담방식으로 진행되어 참가기업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기자

# 도·시·군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회의 개최

### 농촌 현장에 적합한 정책 발굴 · 제안... 농촌 활력 방안 모색

전북도와 전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송병철 센터장)는 22일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2023년 시군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023년 각 시군의 농촌 활력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참석자들은 시군 농촌 현장에 적합한 농업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

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시군 중간지원조직이 추진하는 사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출향인과 도시민들 참여에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철규 농촌활력사업팀장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농촌활력을 찾기 위해 농촌활력사업분야 8개 사업 45억 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분야 4개 사업 43억원, 농촌사회서비스 분야 5개 사업 95억원 등 총 17개 핵심사업, 183억원 투자 계획을 설명했다. /김재훈 기자

**모집 2023학년도 1학기 3월 개강 상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현대인의 인기과제 이오니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보람과 당당함은 물론 큰 변화를 드립니다.

**김양욱 교수**

- ▶ 전북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권역교수 및 권역교수
  - 전북대학 토론에 면접 담당교수
  - 스피치사격서원 집행위원장
  - 한스스피치 등변협회 권역회장
  - 전북언어교육원 및 기원, 단국 특성교수
  - KBS TV아침매장, MBC TV, JT, THN 권역 및 강사
  - 스피치 칼럼리스트 ·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서적 '365스피치이슈네이션' '나쁜 세운, 빌, 빌' '스피치 101' 등
  - 스피치 저서, 평생교육사, 시낭송서도자 등 자격증 소위자

(전북도내 각 평생교육원 원우모집)

- 전주교육대학교(전주, 임실, 완주)
- 군산대학교(군산, 서천)
- 원광대학교(익산, 충남)
- 우석대학교(전주, 완주, 진안)
- 전북과학대학교(정읍, 고창)
-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순창, 장수, 전남)
-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부안)

\* 각 평생교육원 입학 시 · 군을 선택 바랍니다.  
\* 전주지역과 익산지역은 주관과정에 있습니다.

상담전화 : 285-6676 · 231-6669 · 010-7304-5665(주 · 아)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